

중증 천식발작 조절 후 약물 중단에 의한 악화 유무에 따른 임상 특성의 차이
전남의대 내과 이민구, 최인선, 심명기*, 고영일

중증 천식발작을 일으킨 환자는 기도평활근 수축에 의한 초급성 질식성 천식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기도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일차 조절이 된 상태에서도 천식약을 중단하면 곧바로 천식 발작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중증 천식발작을 일으킨 환자 중 일부는 호흡곤란 인지능 저하 등의 위험요소가 있어 퇴원 후 천식발작으로 사망할 수도 있으므로 조절된 후에도 조절제를 규칙적으로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등 환자교육을 철저히 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천식약을 중단하고 기도과민성 검사를 시행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저자들은 이렇게 천식약을 중단하였을 때 천식발작이 곧바로 일어나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가 있는 것을 경험하여 이들의 임상적 특성의 차이를 보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중증 천식발작으로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 중 천식 조절 후 퇴원 전 천식약 중단을 시도한 환자의 진료부를 후향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대상자 15명 중 8명(53.3%)에서 약물 중단 후 천식발작이 없었고(대조군), 7명(46.7%)은 천식발작이 심하여 기도과민성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다(악화군). 양군 사이의 비교에서 악화군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연령이 높았고(64.6 ± 9.0 대 46.3 ± 18.9 세, $p < 0.05$), 부비동 X선 사진에서 부비동염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았다($7/7$ 대 $2/8$, $p < 0.001$). 성별, 흡연력, 유병기간, IgE치 및 아토피 유무, 천식발작 중증도, 치료 후 폐기능의 가역성 정도, 최대호기유속의 일중 변동률, 급성천식 악화 기간과 원인은 양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으로 천식발작이 조절된 후에도 노인환자나 부비동염이 동반된 경우는 천식약 중단 후 곧바로 천식이 악화되는 위험성이 있었다.

통합의료정보시스템에서 약물 과민증 필터링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의 이용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 김윤이*, 고수진, 이태훈, 이재천, 조유숙, 문희범

약물 과민증은 치료 및 진단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나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예방 방지를 위해서는 과거력을 철저히 조사하여 재투여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약물 과민증 필터링을 통한 재투여 방지를 위해 자체 개발한 전산 프로그램의 사용 경험을 소개하고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원인 약물의 종류와 발현 양상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2003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하거나 알레르기내과 외래를 방문한 환자들 중 새로 약물 과민증이 발생하였거나 과거력이 있었던 경우 증상과 약물의 종류를 의사나 간호사가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하였다. 입력된 모든 환자들의 자세한 병력과 임상 양상을 알레르기내과에서 검토하여 약물 과민증의 유형과 원인 약물의 종류를 확인한 후 통합의료정보시스템(OCS)에 등록하였고 처방 입력 전에 약물 과민증 경고창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연구기간 동안 입력된 입원 환자의 약물 과민증 빈도는 0.38%(102/27042)였다. 입원중 발생한 약물 과민증(62예)의 원인 약물은 항균제, 혈관조영제, 항암제 순이었고, 임상 증상은 피부 증상, 아나필락시스 순이었고, 피부 증상은 급성 두드러기 및 혈관부종이 가장 많았다. 그 중 과거력상의 원인 약물을 재투여하여 약물 과민증이 발생한 경우는 10예(혈관조영제 6예, 항균제 3예, 진통소염제 1예)였다. 과거력상 약물 과민증(77예)의 원인 약물은 항균제, 혈관조영제, 진통소염제 순이었다. 알레르기내과 외래를 통해 등록된 약물 과민증(103예)의 원인 약물은 진통소염제, 항균제 순이었고, 임상 증상은 천식, 피부 증상, 아나필락시스 순이었으며, 피부 증상 중에서는 급성 두드러기 및 혈관부종이 가장 많았다. 본 연구에서 기존의 보고에 비하여 약물 과민증의 발생 빈도가 낮고, 심한 반응이 경한 반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은 것은 경한 약물 과민증의 보고 누락 및 약물의 처방이나 시술이 외래와 입원 환자간, 1,2,3차 의료기관 간의 차이가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약물 과민증을 일으킨 원인 약물의 재투여 방지와 정확한 약물 과민증의 빈도 및 임상 양상의 파악을 위해서는 과거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향후 각 의료기관에서 전산화된 입력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